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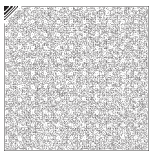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290호

2020년 6월 21일(가해)

연중 제12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28(27),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 예레 20,10-13

화답송 | 시편 69(68),8-10,14와 17,33-35(© 14c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

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과,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

제2독서 | 로마 5,12-15

복음환호송 | 요한 15,26,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복음 | 마태 10,26-33

영성체송 |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두려워 말고 선포하라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달, 코로나바이러스로 미사 전례를 비롯한 신앙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변화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시절입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복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곤경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1독서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 선, 그러나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과 백성이 처한 위기를 내다보며 야훼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백성이 기다리는 ‘야훼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패배와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엉뚱하게도 ‘뿔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는 일을 위해’(예레 1,10 참조) 파견되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그가 유다 왕국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겁내고 두려워하던 그가 왕들과 사제들, 거짓 예언자들, 모든 백성을 거슬

러 싸움으로써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는’(예레 15,10 참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그를 파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역경을 이겨낼 힘도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예레 1,19) 하느님의 말씀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인 동시에 기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순교하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불충실과 비겁함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삶의 매 순간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증거해야 할 현장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에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소망이 담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 구원의 은총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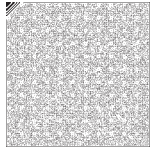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32)

라베르나 성지 오상 경당 회랑의 측벽에 있는 작은 문을 나서면 바위 틈 사이로 조그만 통로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통로 뒤에 있는 바위 절벽에서 한동안 홀로 묵상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길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일 것입니다.

임창준 프란치스코 | 가톨릭사진가회





윤태영 토마스 | 복음화 활동가

| 과감한 포기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곧 두 돌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또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아이들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특히, 둘째인 아들은 첫째인 딸과는 또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아들은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곤 합니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한참 놀다가도 아빠 손에 새로운 것이 들려 있으면 관심을 보이며 달려듭니다. 제가 그걸 내어주면,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 좀 전까지 재밌게 갖고 놀던 물건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남자아이라 씹씹하구나!’ 하면서 하하 웃고는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 쥐고 있던 것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과감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전의 것을 놓지는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청하고만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않고, 이것저것 별려놓은 것들은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만 다했다고 있던 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웃으며 저에게 새것을 내밀어 주셨는데, 제 손엔 이미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서 그 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달라고 보채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옛것을 과감히 내던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탄하며 신앙의 태도를 한 수 배우고,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지나버린 것들, 내 욕심과 집착으로 인한 것들,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선물과 기회를 붙잡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레놓고는 왜 가만히 계시냐고 칭얼대고 말이죠.


새롭게 되기 위해 옛것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위 담지 못하도록 아예 과감하게 멀리 던져버리는 연습을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루카 5,38)

를 이루는
성경구절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루카 1.37 

이경성 요셉 | 대방동성당

북한 천주교회의 과거와 오늘

과거 1944년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의 8개 교구 중에서 북한에는 3개의 교구(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교구)에 약 5만 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당시 평양교구에는 본당 19개, 공소 106개, 교육기관 22개, 복지기관 17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신자 수는 2만 6,4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무렵에는 3명의 주교와 80명의 성직자 그리고 180명의 수도자가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을 만큼 북한교회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1948년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운영하던 시설이 몰수되고, 1949년 평양 교구장 홍용호 주교의 납치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체포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는 단 한 명의 사제도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교회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등 북한 천주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납치는 바로 교회의 붕괴로 이어졌고,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40년 넘게 끊어져 있던 신앙의 맥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종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고려로 인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6월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결성되었고(1999년 1월 조선 카톨릭교 협회로 명칭 변경) 10월 평양에 장충성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교회와의 교류도 이어가면서 주교단

의 사목 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의 천주교 성당은 평양시 선교구역에 건립된 장충성당이 유일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된 신부가 없기 때문에 신자 대표 2명이 돌아가며 매주 일요일 3차례 공소예절을 거행하고 있습니다.(평소 70~80명, 큰 축일 때에는 200명 참석, 북한 신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평양 내 신자는 총 800명) 반면 현재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천주교 신자 숫자는 해방 전 세례를 받은 사람과 1990년대 들어 생겨난 새로운 신자를 포함해서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천주교회는 1990년 후반부터 인도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적인 지원이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북한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천주교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방치했었습니다. 지난날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북녘땅에 있는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나눔을 더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꽃 피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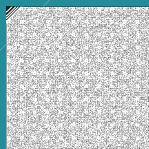
사목국 기획연구팀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낮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중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 가이드

그린북



| 내 마음속의 편견을 버릴 때

초록은 자연의 색입니다. 평화와 안전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색과 이름으로 1936년부터 1966년까지 미국에서 나온 흑인 운전자를 위한 안내서 '그린북(Green Book)'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배려도 존중도 아닙니다.

그린북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이 여행을 하려면 평화로운 휴가를 위해서 잠은 이곳에서만 자고, 밥은 이곳에서만 먹어라. '이곳'은 사회가 쳐놓은 차별의 울타리인 유색인 전용 호텔과 식당들입니다. '집처럼 편안하다', '미식가를 위한 훌륭한 식사'란 수식어가 달려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토니 발레룽가(비고 모텐슨 분)는 넓고 저저분한 호텔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로서는 당연합니다. 그는 백인입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니 순진하게 그린북을 믿은 거지요. 그러나 돈 셸리(마하살라 알리 분)는 "여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천재 뮤지션(피아니스트)으로 백인들의 초청을 받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도 "그냥 검둥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남우조연상을 받은 영화 <그린북>은 1962년 미국 남부를 순회 연주하는 돈과 그의 운전사로 고용된 토니가 8주 동안 만나고, 보고, 겪고, 부딪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먹과 거친 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탈리아 출신의 가난한 백인과 천재적 재능과 교양, 품위를 가진 여유 있는 흑인이란 인물과

그 관계 설정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에서부터 낯은 고정관념을 깨버린 영화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로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론 유쾌하게, 때론 날카롭게, 때론 가슴 뭉클하게 깨우쳐 줍니다. 노예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흑백차별이 남아있는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이라면 누구도 차별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절을 그린 영화 <헬프>(2011년)의 가사도우미들, <히든 피겨스>(2017년)의 미

항공우주국 비행연구소의 여직원들도 그랬으니까요. 돈 역시 백인들의 연주에 초청되지만, 식사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화장실 사용도 금지입니다. 심지어 양복점에서 새 옷을 한 번 입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통이고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비뚤어진 눈과 기울어진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무지와 맹목에 맞서 이기려면 폭력이 아닌 품위, 틀을 깨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 출입을 막자 버밍햄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거부하고 대

신 길 건너 흑인 식당에 들어가 처음으로 신나게 연주하는 돈과 그의 선택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토니처럼.

정반대처럼 보였지만 토니와 돈은 결국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백인이면서 백인에 속하지 못하는, 흑인이면서 흑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흰 돌들 가운데 놓인 검은 돌'이었던 거지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우정은 피어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 존중의 시작은 이렇게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여는 것인가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꺼이 다가간 예수님처럼.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1베도 3,15)

| 🇩🇪 독일 |

저는 지난 2월 14일, 9년간 몸담았던 신학교를 떠나 막 시밀리안 본당으로 왔습니다. 저희 성당은 120년 전에 지어졌고 뮌헨의 노트르담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신자 수가 3만 명을 헤아렸고, 평일미사 3대, 주일미사 9대가 드려졌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모두 여섯 명이 있던 신부가 지금은 본당 신부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제가 지방마다 차이가 큰 독일 교회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2,300만 명(27.7%) 정도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세례는 16만 명 정도, 장례는 24만 건 정도이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20만 명 정도 됩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추행, 일부 주교들의 부도덕한 재산 운용과 사회적 공감력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계기로 2010년 이후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 평균 주일 미사 참여율은 9.3%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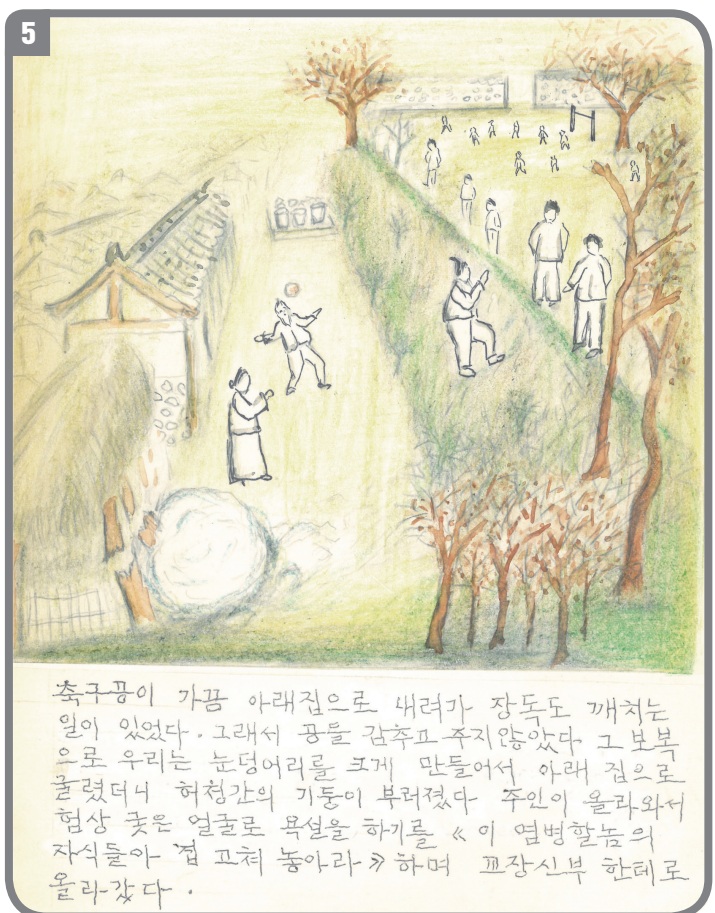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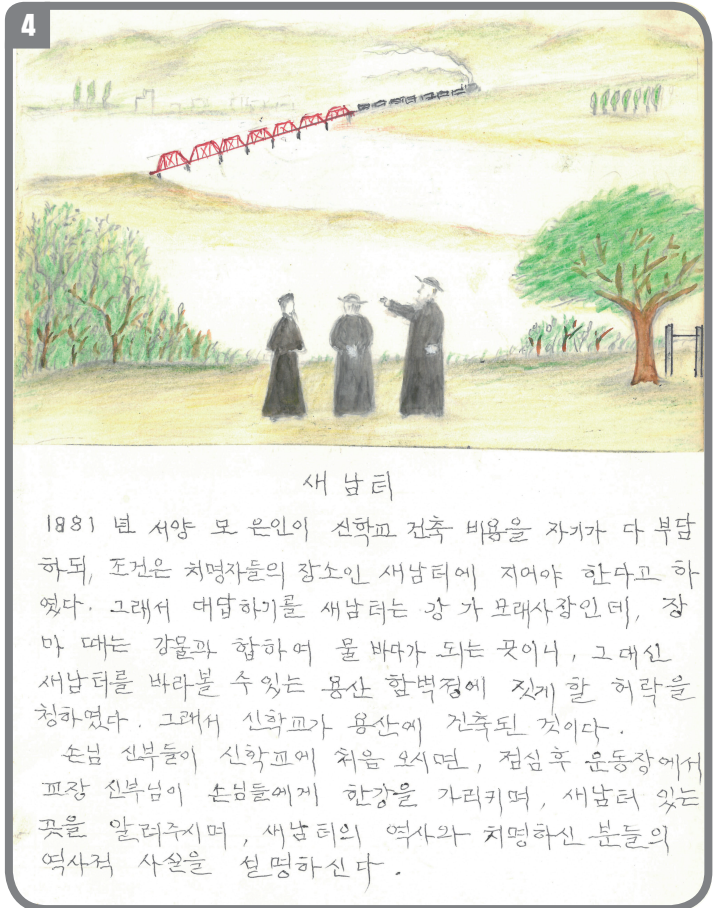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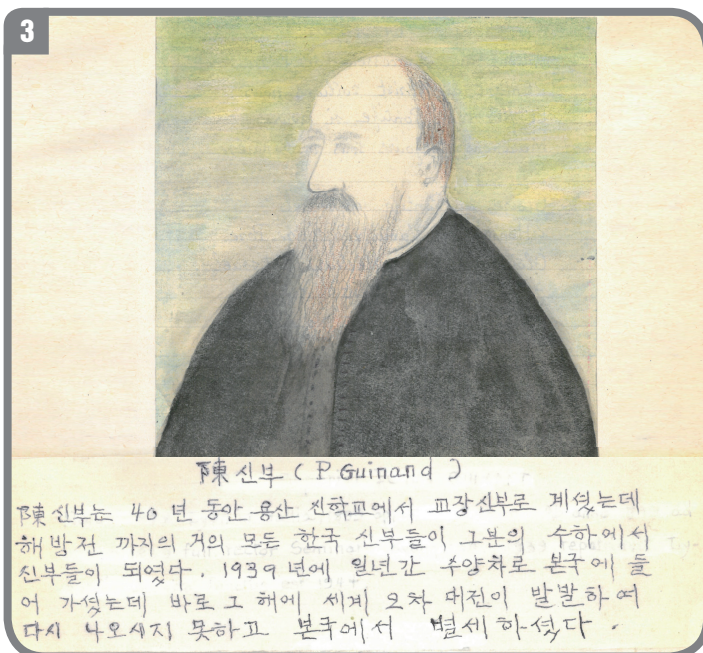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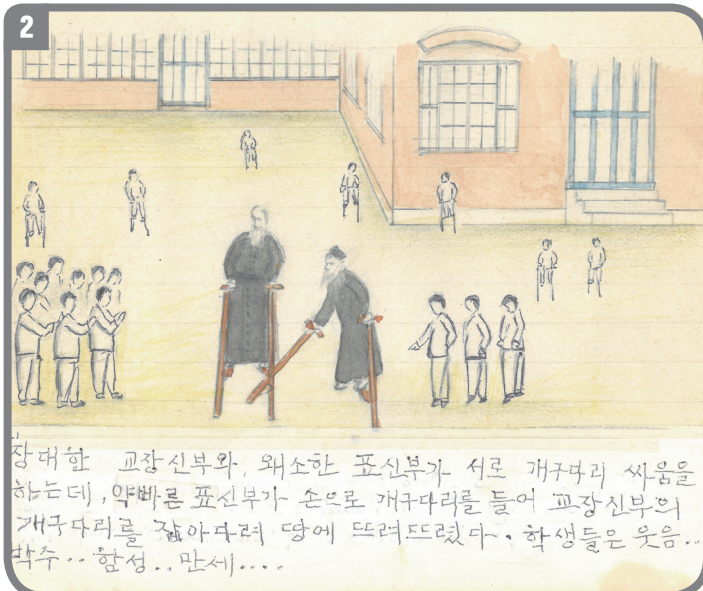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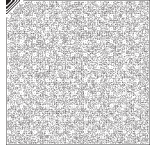
1960년대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합하여 90% 이상이었던 그리스도교 신자 비율이 현재는 53% 정도이고 206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960년대까지 신앙은 독일인들에게 사회적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름 깊은 신앙 없이는 누구도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사회적 문화적 옷을 입고 있지만, 신앙의 핵심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잘 살수록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견해는 하느님을 재화의 경쟁 대상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자 수의 감소는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교회 기관의 부족한 대응의 결과인 동시에, 고정된 신앙생활 형태를 고집하려는 이들의 관점을 정당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해지는 인간의 활동과 생활양식에 맞춰 당신의 파동을 전달하십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야 할 교회가 독일 사회에서 변화의 커다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적으로 불편한 점도 많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주어진 시간을 통해 저의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제가 얼마나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지 저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과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그분의 도구로 불렸을 따름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명확해졌습니다. 제 삶에서 희망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저에게 희망이 무엇이라고 묻지 않겠지요(1베도 3,15 참조). 마찬가지로 제 삶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저에게 신앙이 무엇이라고 묻지 않겠지요. 복장, 신분, 학위를 다 내려놓으니 가난한 저의 신앙만이 남았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저의 고유한 신앙보다는 신자들의 신앙과 신학생들의 순수함을 제 것인 양 소개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곳에도 거짓 없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배우고 저를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기쁨과 보람이 잔잔하게 저의 부족한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신정훈 마카엘 | 독일 선교

『노사제가 만화로 남기는 신학교 이야기들』(임충신 글·그림, 가톨릭출판사)은 100여 년 전 용산 신학교에 입학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故 임충신 신부님의 삶을 통해 옛 신학교 모습과 생활을 다룹니다.



정훈(베르나르도)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정훈(베르나르도, 57세) 신부님께서 지난 6월 7일(일)에 선종하셨습니다. 정훈 신부님은 1964년 서울 중구에서 출생하여 1990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서초동, 미아3동(현. 미아동), 신정동, 신천동, 지금동(현. 의정부교구), 문산(현. 의정부교구), 삼각지,

중림동(현. 중림동 약현), 아차산성당에서 사목하셨습니다. 6월 9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2020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6월25일(목)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남북통일 기원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월24일(수)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6월29일(월)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6월24일 윤의병 바오로 신부(60세)
- 1950년 6월25일 김정민 루도비코 신부(48세)
- 1984년 6월25일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82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교구청알림

소방사목 선교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파견

대상: 전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9109-2078 직장사목팀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무료전화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월~금, 10시~13시, 14시~17시) / 문의: 02)727-2137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승재 사진전: 제 1전시실
심상우 십자가전: 제 2전시실
하수정 문인화전: 제 3전시실
전시일정: 6월17일(수)~22일(월)

재능기부자 모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정신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점검에 함께할 재능기부자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6월1일~30일 / 활동기간: 9월~10월
활동분야: 사회복지시설 업무(회계, 노무, 조직, 인사 등) 전반
활동장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사회복지시설(서울전역) / 모집대상: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문의: 02)727-224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때: 7월2일(목) 오후 2시~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서울주보 알릴 게재 신청

| 문화홍보국 홈페이지: <http://cc.catholic.kr> |

- ①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 ②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③ 내용 수정,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청년 신약성경 통독 피정(마리아의 딸 수도회)
 때, 곳: 6월27일(토), 본원(목동) / 문의: 010-6595-0280

신·구약 성경완독 피정
 때: 7월17일(금)~25일(토), 8월4일(화)~12일(수)
 8박9일 /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 집

다들피정의 집 하계 피정
 주제: 하느님 섭리 안에 머물 / 문의(접수): 010-8906-2141
 때: 7월24일~26일, 7월31일~8월1일, 8월7일~9일

ICPE 선교회 청년 몸 신학 피정
 때, 곳: 7월17일(금) 20시~19일(일) 17시, 마리스 타(합정동) / 문의: 010-7548-6664

성모신심 피정(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때: 6월29일(월) 10시~16시 / 대상: 모든 신자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6-3473

묵주기도 피정 / 문의: 031)952-6324
 때, 곳: 6월30일 10시(성서 말씀으로 된 십자가의 길과 묵주기도 묵상)·14시(미사), 파티마 평화의 성당(주최)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봉헌
 대상: 중재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
 때: 7월1일~31일 / 문의: 010-5482-3217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6월23일(화) 12시(묵주·강의·성시간)~14시50분(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3)432-4121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7월18일(토), 가실성당 외 2곳(대구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 입금 순 접수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 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7월10일~24일 매주(금)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7월7일~21일 매주(화) 13시~17시	회비: 15만원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7월4일~5일	8박9일	6월24일~7월2일
3박4일	7월9일~12일, 7월27일~30일, 8월1일~4일(창년)		
40일	10월6일~11월14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7월5일~8일
자연순례 피정	6월26일~28일, 7월19일~21일, 8월17일~19일, 8월21일~23일
자연순례·우도 여름해변 자유일정 포함	7월25일~28일, 8월1일~4일, 8월6일~9일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때, 곳: 8월5일(수)~9일(일), 서울 성베네딕도회
 피정의 집(주최) / 지도: 허성준 신부, 이정희 수녀
 회비: 36만원(36명, 1인실) / 문의: 010-4731-2468 최 안나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 문의: 064)796-9181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때: 7월3일~5일, 7월27일~29일, 7월31일~8월2일

혼인재발견(트루바이) 주말 / 문의: 02)929-2141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박3
 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 곳: 7월3일~5일, 베네딕도 피정의 집(정충동)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부작용이나 공복감 없이 진행되는 효소단식으로 독소·노폐물·체지방 등을 디톡스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프로그램이며 함께하는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현존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영육간의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때, 곳: 7월24일(금)~27일(월)·8월7일(금)~10일(월)·8월14일(금)~17일(월),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 회비: 36만원(효소식 포함)

교육

묵주 반지 목걸이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아퀴나스 오르간음악연구소
 반주자를 위한 오르간 교육 / 문의: 02)338-3793
 7월6일(월) 개강 / 성가반주법, 페달사용법 등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원)
 곳: 가톨릭회관 3층 333호 / 대상: 글씨에 관심있는 분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제47차 수도생활 체험학교
 대상: 고등학생 이상~40세 이하 미혼 남녀
 때: 7월31일~8월2일(2박3일) / 문의(접수): 010-8353-2323
 곳: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주최, 경북 왜관)

20~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
 지도: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때: 6월~12월 (일) 16시~18시 / 문의: 010-4598-6912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10만원(3개월)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시스피나음악원 회원 모집 / 문의: 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 금) 11시	오후반	(화) 19시30분(주1회)
-----	------------	-----	-----------------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
 곳: 프살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
 아선교회부설 청각장애인센터(주최)
 문의: 02)941-1880(learning4@daum.net)

주간반	7월8일(수) 11시	저녁반	7월9일(목) 19시30분
-----	-------------	-----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여름진학캠프
 대상: 초6, 중1·2 / 문의: 054)338-0530

전입학설명회	7월4일(토) 14시
여름진학캠프	8월7일(금)~9일(일)

불로동성당 교육

내용: 예수 성심 성일 및 공감에
 대해서 / 강사: 이우진 신부
 때: 6월28일(일) 13시30분~15시30분
 곳: 불로동성당 / 대상: 모든 교우
 문의: 032)569-1004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가을학기 모집
 생소한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구성
 대상: 외국인 및 재외동포 / 모집기간: 8월31일(월)까지
 때: 9월7일~11월19일 매주 (월~금) 9시~13시
 회비: 가톨릭계 성직자 50% 감면 / 문의: 02)2164-4818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
 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정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3D프린팅·제과제빵·
 바리스타·뷰티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
 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지원교사모집: 사진, 영상편집 및 제작, 인테리어 재능기부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원3동) / 02)2691-6543

예수회 특별 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예수회센터)
 강사: 임숙희 박사, 홍기령 교수, 예수회 사제(송
 봉모·김정택·이규성·전찬용·권오민)
 때, 곳: 9월8일부터 매일 둘째·넷째주(화) 10시
 ~11시55분(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가톨릭의대 알코올관련 인지장애 연구참여자 모집
 대상: 음주와 관련하여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나는 인지기능 장애(경도 인지장
 애 또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현재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만 50세~65세) / 문의: 010-7626-7586
 내용: 혈액검사, 뇌MRI 및 인지기능검사(검사비 무료)
 주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독기술훈련센터
 곳: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초구)
 전화상담 후 참여가능 여부·검사내용 안내
 기타: 교통비 포함한 사례비 지급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가톨릭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7월1일~23일
 9월1일 개강 /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9시~15시40분(2년)	세례 3년 이상 겹친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선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 학과	(월~금) 19시~21시35분(2년)	
신학심화 과정	(화~목) 9시~15시40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에파타성당 수어(手語) 교육강좌

에파타성당 수어(手語) 교육강좌			
초급 6개월	초급6개월	중급6개월	고급6개월
주간반 7월8일부터 매주 (수·금) 14시~15시30분(주2회)	야간반 7월9일부터 매주(목) 20시~21시30분		
곳: 에파타성당 / 02)995-7394(scedaf01@hanmail.net) 사무실			

명동대성당 수어(手語) 교육강좌		
초급 6개월	7월9일부터 매주(목) 19시~21시 7월10일부터 매주(금) 19시~21시	회비: 12만원
곳: 명동대성당 범우관 408호 / 문의: 02)774-1784 사무실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 신청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 수시 접수 가능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접수: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모집

서울 십자가의성요한 재속 맨발 가르멜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7월13일(월) / 문의: 010-3217-8235

검정고시 학습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모자시설 마음자리에서 검정고시 학습을 지도해 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시간·요일: 협의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문의: 02)2691-4365, 010-8634-4365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첫영성체 받은(2020년 예정인) 가톨릭 신자 / 문의: 02)2270-2291, 010-2650-8014
오디션: 6월28일(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6월25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참조

무지카사크라서를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르네상스시대의 무반주 다성음악을 주연주 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무지카사크라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45세 이하의 맑은 음색을 소유한 형제자매(전공자 환영)
인원: 남녀 각 성부 약간명 / 문의: 010-3367-3002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6월24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 문의: 010-8982-9819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때, 곳: 6월25일(목) 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6월22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오병웅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고준석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김수환 추기경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카카오톡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채널 추가
문의: 010-4149-1853, 1864(carmelcenter.kr) 가르멜 수도회

첫토 성모산심미사	매일 첫번째(토) 10시30분
명사초청특강	6월26일(금) 13시30분 / 문자 사전접수
성시간	매일 마지막(토) 6월27일 13시30분
청년 피정	7월4일(토) 15시
문화강좌	초공예·서예반 수시 모집

6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6월24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인사

꼬메스영성상담소

영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만나면 삶과 회복이 있습니다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운영 /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안심병원' 운영 / 041)950-1008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 02)2258-7720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비대면 상담 가능
상담비: 대학원생 5천원, 전문가 7만원

수사신부와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 몬피노인요양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중립동약현성당 2021년 1·2월 혼인 예약

중립동약현성당에서는 2021년 1·2월 혼인예식 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 02)362-1891
2021년 3월~12월까지 예약은 10월 중에 추첨이 있습니다
때: 7월7일 오전 9시 /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

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봉안당 오픈

봉안기수: 4,997위 / 관리비 별도(안치시 납부)
봉안기간: 안치일로부터 20년(10년, 2회 연장 가능)
사용봉헌금: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1위 기준)
서류: 교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안치예정자 기준)
문의: 032)933-1525 갑곶성지 사무실, 010-5794-1530(문자 수신)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 14시~16시 소그룹(건강한 대화)
전문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 종합심리검사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726-0700

전문 심리상담	개인, 부부, 가족(자녀), 청소년 및 미술 치료(아동) /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성격), 학교·직장 내의 부적응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	----------------------------------------------------------------------------------------------

온라인 복음화학교 '치유치유TV' 구독 안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유치유TV를 검색 한 후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치유와 위로의 영상 강의가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옵니다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교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청소년 언어·매체상담·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 / 문의: 02)2051-3743

유판단지 일람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개인·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모래놀이치료사 기초교육	7월16일~23일(목) 17시~20시30분(2회)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과정	7월31일(금) 10시~15시(5주) / 6명

직원모집

서울대학교청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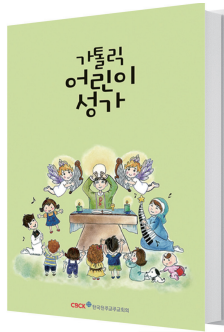
대상: 세례를 받은 분 / 인원: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6월28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 성안베르 센터(은평구 진관동 파정의 집) 직원 모집

대상: 세례를 받은 분, 단체 급식 조리 경력 우대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부서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6월28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7437-3217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점견실	010-4241-1210
예수 고난회	7월4일(토) 18시~5일(일) 11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6월28일(일) 14시	가톨릭회관 526호(아프리카잡미아선교후원회 사무실)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가톨릭 어린이 성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편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472쪽
1만원 | 문의: 02)460-7582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전례에 더욱 능동적으로, 기쁘게 참여하도록 도와줄 어린이 성가책이 새로 나왔다. 이 성가책을 통하여 모든 어린이가 전례의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여, 예수님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활기찬 신앙생활로 기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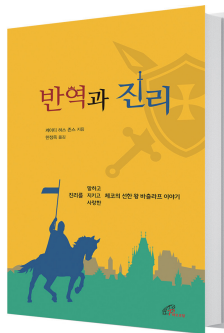


신간

지쳐 있는 당신에게

안셀름 그린 지음
분도출판사 | 216쪽 | 1만6천원
문의: 02)2266-3605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들은, 삶의 에너지를 다시 길어 올릴 원천을 갈망하며 내적인 힘의 원천과 접촉하고 싶어 한다. 이에 저자는 '흐린 샘'과 '맑은 샘'이란 표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심리학과 영적 전통에서 찾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오래도록 수도자로 살아온 자신의 체험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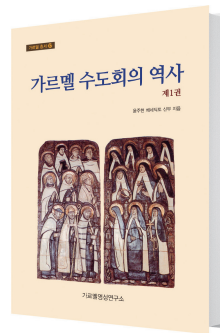


신간

반역과 진리

케이트 허스 존스 지음
바오로딸 | 260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체코의 선한 왕 바츨라프(벤체슬라오) 성인의 삶을 박진감 넘치게 그려낸 청소년 소설이다. 죽음의 순간에도 진리와 용서를 선택한 그의 신앙이 큰 감동을 주며 용서, 구원, 인간의 고통 등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흥미진진하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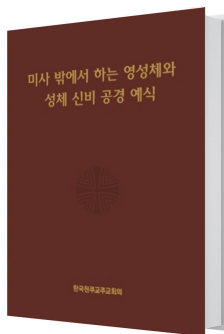


신간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제1권

윤주현 지음 | 기쁜소식
432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가르멜 수도회의 시작인 12세기 말부터 맨발 가르멜 수도회가 스페인 맨발 가르멜과 이탈리아 맨발 가르멜로 양분되어 정착된 17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를 연대별, 주제별로 다룬다. 또한 가르멜 수도회의 탄생, 적응과 쇠퇴, 맨발 가르멜의 탄생과 발전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간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편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96쪽 | 3만원
문의: 02)460-7582

2016년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을 발행했다. 이 예식서는 2019년 추계 정기 총회 때 발표한 출판 교령에 따라, 2020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부터 사용하며, 그동안 사용하던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시안)'을 대체한다.



신간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편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184쪽 | 5만원
문의: 02)460-7582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6년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을 발행했다. 이 예식서는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 총회 때 발표한 출판 교령에 따라, 2020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부터 사용하며, 그동안 사용하던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시안)'을 대체한다.

【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 】

■ 미사 전 준비

- 미사 참례자는 대성전 입장 전,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조사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둔 지정석에만 앉습니다.

■ 미사 중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거나 가능한 한 조용히 응답합니다.
-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예: 평화의 인사 등).
-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아멘’ 합니다.
- 봉헌과 영성체 행렬 시 앞 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미사 후

-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가져갑니다.
- 미사 후에는 다음 미사를 위해 대성전 출입을 통제하오니 미사가 끝나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등에 따라 상기 지침이 주보 발행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자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미사 재개에 따른 기타 방침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설 고해성사, 본당 제 단체의 모임과 회합, 외부 대관행사는 ‘계속 중단’됩니다.

◎ 용기장학회 월례미사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일시/장소 : 6월 22일(월) 오전 11시 / 패밀리아 채플

·주례 : 오병웅 신부님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 고준석 신부님

·문의 : 용기장학회 사무국 ☎ 727-2525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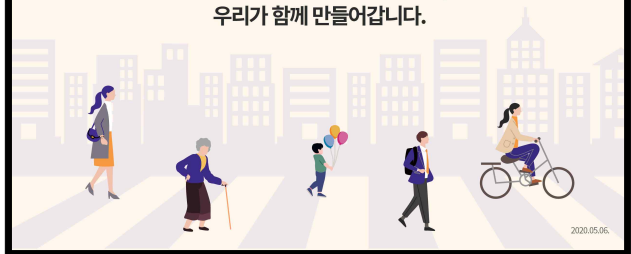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지무어 위헌 † 9월 기도 지향

6월 17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6월 18일: 북한과 미국,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6월 19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6월 20일: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6월 21일: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6월 22일: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6월 23일: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6월 24일: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6월 25일: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 기부 전시 ❖

명동성당 중립계획 2단계 기금

(6월 8일 ~ 6월 14일 : 100,000원)

누계 : 1,532,725,123원

의 명 : 50,000원 | 의 명 : 50,000원

기부 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774-1784(☎)
753-1784(FAX)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 라리 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2019년 9월에 입교하신 예비신자들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오후 2시 미사는 세례당사자와 대부모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다른
시간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재편 (6월 21일부터)

요 일	미사시간	미사장소
월~토	10:00, 18:00	대성전
일요일	08: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영어미사 없음.)	

※토요일 오후 6시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대성전 개방 시간 ☞ 월~토 : 09:30 ~ 19:00

☞ 주 일 : 07:30 ~ 19:00

※채운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여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주일미사 참여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열체크 후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 7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월 입교 시 세례성사는
2021년 1월에 거행되며, 예비신자환영식은 7월 5일
(주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 7:30	교구청 본관 401호	김영훈 (베드로) 신부
주일반	오전10:00		오 세실리아 수녀

※7월 5일(주일) 환영식에 꼭 참석하셔야 하며,
수요반(60명), 주일반(60명) 선착순 접수합니다 !

● 교황 주일 2차 헌금

6월 28일(주일)은 연중 제 13 주일이자 '교황 주일'
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를 위해 특별히 기도
하는 날로서 매 미사마다 교황 성하의 사목을 지원
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 축하합니다 》

6월 24일(수)은 전례·성음악분과 담당이신
유영주 (세례자요한) 부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
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매년 6월 25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가 6·25 전쟁 정전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평화체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아래와 같이 9일
기도를 함께 봉헌해 주십시오.

1. 9일 기도 [6월 17일(수)~6월 25일(목)]

미사 전이나 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면 / 매일미사 191면)를
함께 봉헌해 주십시오.

(※9일 기도 지향은 주보 안쪽 면 참조)

2.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봉헌

· 일시/장소 : 6월 25일(목) 오전 10시 / 대성전

· 주례 :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과

보좌 주교 공동 집전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제 : 전쟁의 기억과 화해의 소명

· 일시 : 7월 27일(월)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 JSA 성당

(변경될 경우, 참화와 속죄의 성당)

● 청소년봉사부와 주일학교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첫영성체는 취소되었
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여름캠프는 없을 예정입니다.
초등부·중고등부·솔송이 주일학교 개학은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 보류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6/8-6/14).....14,686,500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헌금...10,228,000
· 감사헌금 (6/8-6/14).....1,296,000

김 루치아 / 김 미카엘 / 김 미카엘라
김 프란치스코 / 김 헬레나 / 임 사무엘
전 파비아노 / 조 클라우디아 / 익명(1)